

“전주역 택시주차 대란 심각하다”

존스쿨 이수 공무원 7년새 3.5배 ↑

작년 63명 2010년 18명에서 늘어 일반인은 절반으로 ↓

이춘석 의원, “공무원 처벌 면피용 수단 돼선 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동영 당대표(사진)는 최근 코레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전주역 택시주차 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코레일 등 관계자들로부터 “택시주차 대란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시 철도공공사



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주) 관계자들을 불러 전주역 택시주차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현장 논의를 했다.

전주역 주변 주차대란 문제는 KTX 개통 이후 전주역 이용객 급증과 턱없이 부족한 여주변 주차장 주차면적으로 인해 그동안 해결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였다.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주차장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 몰려드는 차량들로 인한 주차난에 몸살이

다. 택시와 버스, 승용차가 한데 엉켜 대혼잡을 이루기 일쑤며, 전주역에 진입하지 못한 택시들은 역을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도 택시가 없어 20분~30분 줄을 서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다. 즉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이용객들도, 택시운전자들도 모두 불편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가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 유료주차장의 주차면적은 123면에 불과해 역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는 “전주

역 이용자와 택시운전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역 입구에 마련된 택시 승차장과 인근 시내버스 승차장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해치고 있는 등 전주역 주차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택시주차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주역 택시 교통대란 해소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전주역 택시 주차 등 주차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개선을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만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견주어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태도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존스쿨 제도에 대해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판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기소유예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협의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수협, 1조5000억대 공적자금 수혈 받고도 ‘억대연봉 잔치’

작년까지 상환액 127억원
작년기준 억대연봉자 379명
비율은 13%로 해마다 늘어
김종희 의원 “공적자금 상환 임직원 스스로 고통 분담을”



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상환한 돈은 고작 127억 원에 불과하다.

IMF 구제금융 이후 수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1997년 851억원, 1998년 3551억원, 1999년 4442억원, 2000년 9887억 원으로 급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왔다.

이에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의 일환

한 이행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2001년 4월26일 1조1095억 원을 시작으로 2001년 12월31일 48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협은행에 총 투입한 공적자금은 1조1581억 원이다. 그리고 매년 수산예산의 10%가 넘는 2000억원대(2018년 기준 2700억원)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정부에 상환한 돈은 고작 127억 원에 불과하다. 수협의 계획은 2028년 까지 공적자금을 갚겠다는 입장이나 매년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주머니는 두둑하게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한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억대연봉자는 379명으로 2013년 93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379명으로 4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입사 후 평균 45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10년도 안되어 2배 이상 연봉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협이 신의직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희 의원은 “수협은 연봉잔치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 임직원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공동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면서 “한국당은 정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스

“농업인 전문성 강화·전북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도의회 농산경제위, 농식품인력개발원 등 대상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5일, 제357회 임시회 중도 산하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백구)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 전라북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의 전문화를 꾀하고, 나아가 품목별 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농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 2)은 “단순 생산, 판매의 전통농업에서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농업 경영능력 확보가 앞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중요하므로, 현장 참여형 실습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태권도원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시범공연



고난도 신기술과 품새, 그리고 격파가 어우러진 공연 1일 2회 무료 상설 공연

국립태권도박물관



무예도보통지를 비롯한 태권도 유물과 전문자료 전시 세계 최초 태권도 전문 박물관

T1경기장



세계 최초 최고의 태권도전용 경기장 태권도 경기 단행행사, 훈련 등 다목적 시설(4,571석)

전망대



백운산 해발 560m에서 전북·충북·경북의 파노라마 뷰 조망 모노레일, 백운리매 운영

태권도원 연수시설
(265 객실, 최대 1,400명 수용)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T: 063-320-0114 http://tkdwon.kr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